

영일민 트네상스를 향하여



여름이 포항

2011. 8월 13일
www.ipokang.org
054-279-0000 / 1-08

호미곶항민족해맞이축전으로 오세요!

구룡포 거울철 별미기행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말 개통

포커스 나눔의 온도계를 채워주세요!



구룡포 대게식당에 가선*

구룡포 대게식당에 가선
다리를 잘라먹는 유희에 대해서만 말해선 안 된다
등근 식탁에 내리꽂는 갈매기 눈빛에
귀 밝은 대게들이 뛰쳐나와 바다로 돌아갈 것이기에
이때에는 아낙네의 입담 한 술갈에 더 맛을 들여야 한다
양념게장 몇 방울 떨어놓은 질푸른 밥상에
호미꽃의 달빛을 조금씩 비벼먹으면 감기에 좋다든가 하는
대게는 그믐달이 반달로 뜰 때까지
근육질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대게식당도 가끔적 달이 작은 날 찾아갈 일이다
가격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게를 쫓느라 불빛에 쏘인 눈동자가 가라앉기 전까지
갈매기의 안부를 묻지 않고선 잠들지 못하는 게 항구의 버릇이다
구룡포에 고요가 찾아온다 해도 잠들 수 없는 한낮
송곳 갯바위에 앉아 있는 아낙네의 모습이 조마조마하다
살얼음 파도에 베인 상처가 쓰라리다만
문틈으로 새나오는 노랫가락이 구성지다 못해 아프다
바다가 결빙될수록 아낙네의 입담이 그리워지는 구룡포항
갈바람이 웃음을 가위질한다는 일기예보에도
조금도 두려울 게 없다는 아낙네들의 입김이 바다로 향한다
식당으로 끌려온 대게가 함께 자맥질을 준비한다

* 1천만 원 고료 2010년 제2회 포항소재 문학작품 현상공모 시 부문에 우수상을 받은 작품

열린포항



●● 05



●● 09



●● 11



●● 22

12 | 2011 CONTENTS

- 04 테마기행 | 구룡포 겨울철 별미기행
- 08 특집 | 2012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 10 기획 |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말 개통
- 12 탐방 |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2주년 맞이
- 13 문화&교양 | 한국거석문명의 수수께끼 외
- 14 포항스토리텔링 | 물맛이 좋은 참샘 마을
- 16 포커스 | 나눔의 온도계를 채워주세요!
- 17 시정브리핑 |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외
- 19 의정브리핑 | 제180회 임시회 주요의정 외
- 20 포항레이더 | 김장쓰레기 집중 수거기간 운영 외
- 22 포항사랑 | 청림동, 칭찬하는 마을로 변신 거듭
- 23 갤러리 | gulp! gulp! gulp!

2011한민족해맞이축전에서
(1만명 떡국 나누어 주기) 행사를 위해
대형 가마솥으로 떡국을 준비하는 모습.
신묘년 첫 일출을 맞으며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새해 소망을 기원하던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은
언 몸은 녹이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포항시 최고의 새해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손글씨 · 이현정



발행처 | 포항시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편집인 | 홍보담당관 이점식
 편집담당 | 홍보담당장숙경, 박주영
 담당주소 | 79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대잠동 1001) 054)270-2233
 발행일 | 2011년 11월 25일(통권 제100호)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054)275-0558
 인쇄 | 성광인쇄 054)283-2162
 홈페이지 | www.ipohang.org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구룡포과메기, 포항구룡포대게

글 | 정치준 사진 | 안성용

기행



●●● 11월 초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으로 떠났다. 해안도로를 끼고 도착한 곳은 새천년기념관과 국립등대박물관을 가까이 둔 호미곶광장. 해녀들의 물질로 잡힌 성게들이 망태기에 담겨 상생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넘실대는 해안도로에도 들렀던가. 당신이 바라본 것은 7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하고 11월에 열매 익는 자줏빛 해국(海菊). 역센 바닷바람에 몸을 잔뜩 움츠린 구룡포 해국자생지의 그 해국. 역새들이 하얗게 손을 흔드는 해안도로를 따라 겨울로 가는 여행을 떠나고 싶다. 실크로드만이 길은 아니다. 과메기로드, 대게로드, 오징어로드도 길이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조성한 과메기문화거리도 기웃거리고 제14회 포항구룡포과메기축제에도 들르고 싶다. 맛집에도 슬며시 들러 포항지역 특산물을 맛보고 싶다. 단, 그대와 함께할 것. 혼자 하는 여행은 너무도 쓸쓸하니까. 주말에 구룡포 모텔이나 구룡포 펜션에서 그대와 하룻밤을 묵어가도 좋으리. ●●●

길 따라 맛 따라, 과메기문화거리 · 포항구룡포과메기축제



과메기문화거리 준공 제막식은 11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에 있다. 행사 장소는 구룡포읍 구룡포항만 부지(구룡포 우체국 앞). 과메기문화거리는 바다와 낭만이 있고 과메기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조성, 가우디 장식구조로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것.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일원이다. 앞으로 과메기문화거리는 음악회, 백일장, 축제 등 문화행사와 특산물 홍보장소로 활용된다.

한편,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14회 포항구룡포과메기축제가 열린다. 흥과 멋, 맛이 있고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개최로 과메기 원조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행사 취지다. 축제 장소는 구룡포 우체국 앞 야외특설무대. 주관은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겨울철 별미 하나_포항구룡포과메기

포항구룡포과메기 홍보대사로 임명해도 좋을 수필이 있다. 2005년 전북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네가 과메기로구나」는 과메기를 존재론적으로 조명해 인간세상 주변을 두루 훑어 차지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과메기로 거듭나는 과정을 깊은 눈으로 통찰한다.

"너희들은 본디 날렵한 몸매에 감청색 양복, 하얀 와이셔츠를 받쳐 입은 깔끔한 신사가 아니더냐. 하지만 설한풍에 휘불리어 낡은 외투를 걸친 초라한 노숙자 같구나. (...) 나는 꾸덕꾸덕한 과메기 한 점을 생미역에 싸서 초고추장에 꼭 찍어 입에 넣었다. 쫄쫄한 과메기는 유연한 몸짓으로 목구멍을 타고 헤엄쳐 들어갔다. 전혀 걸림이 없다. 얼마나 깔끔한 보시인가. (...) 잔에 바다처럼 맑은 소주를 한잔 따라 마신다. 그리고 염원한다. 이 길이 환생의 길이 되라고, 이 세상에서 과메기가 된 것을 서리워 말라고, 어차피 인간도 죽으면 어두운 땅속에서 열리고 풀리는 영원한 과메기가 된다고."

포항구룡포과메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최상의 맛을 낸다. 진공포장을 해 연중 시식이 가능한 과메기도 있다. 상표등록을 마쳤고 특구로 지정되어 전국 유명 브랜드 대열에 합류한 포항구룡포과





메기는 가격이 시세에 따라 다르다. 11월 초순의 시세는 10마리 기준으로 2만5천 원이다. 이는 물미역, 쌈배추, 파래김, 마늘, 고추, 과메기 전용 초고추장 등으로 구성된 야채 세트를 포함한 가격이다.

구룡포 어촌계 공동작업장 아래 덕장에서 만난 일손에 따르면, 하루에 과메기 작업량은 많게는 30상자, 적게는 20상자다. 세척은 해동과정을 거쳐 बे지기(과메기 배 가르기)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전국구 음식이라면 정성을 다한 위생이 필수라는 듯 바닷물로 세척한 뒤 민물과 바닷물을 섞어 다시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민물 세척을 하는 덕장도 있다. 세척이 끝나면 대나무 막대에 과메기 널기를 한다. 대나무 막대에는 과메기가 20마리씩 내다 걸린다. 전국택배도 가능한 박스포장은 그 다음 순서다.

과메기는 원재료인 청어나 꽂치보다 영양가가 높다. 과메기로 만들었을 경우 어린이 성장과 피부미용에 좋은 DHA, 오메가 3의 양이 상당히 증가한다. 과메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산이 점점 많이 생성되어 피부노화, 체력저하, 뇌쇠퇴 방지에 효능이 있다. 과메기를 먹으면 술에 취하지 않는 이점도 있다. 이는 과메기에 숙취를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인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구입관련 문의는 054-276-0760(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겨울철 별미 둘_ 포항구룡포대게

포항구룡포대게가 수협위판장을 통해 위판을 시작한 날은 11월 3일. 이는 대게 어획금지기간이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구룡포대게는 전국 최대 대게생산지에서 어획한 바다 생물이다.

구룡포항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는 관광객이라면 대게 경매를 구경할 수 있다. 대게 경매시각은 11월 20일(일)까지는 오전 6시 30분부터,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다. 경매마감 시각은 오전 9시 또는 오전 10시다. 대게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룡포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 강구, 영덕 등지에서 온 중매인들도 있다. 타지역 중매인들은 가격이 치솟을 때에도 구룡포대게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포항구룡포대게는 박달대게, 홍게, 청게다. 대게의 가격은 그날 형편에 따라 다르다. 포구 상인들이 최상급 대게로 치는 박달대게 1마리를 구매하려면 10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

대게식당에서 먹기 좋게 다듬어 내놓는 대게의 가격도 시세에 따라 달라서 식당 메뉴판에는 아예 '시세' 라고만 새겨놓고 있다. 한



대게식당 주인의 말을 빌리면 구룡포리 도로가에 밀집한 대게식당은 어림잡아 15군데 정도.

하얀 김을 모락모락 피워올리며 찜통에서 대게를 찌내는 시간은 대략 25분이다. 대게가 다 익기 전에는 찜통을 열면 안 된다. 설익은 밥을 먹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게 현지 상인의 설명이다. 구룡포 대게식당에서는 과메기뿐만 아니라 회도 시식할 수 있다. 대게식당이 회를 같이 판매하는 이유는 대게, 과메기 성수기가 지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의 침샘을 자극하는 포항구룡포대게는 12월부터 2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다. 주말에는 대게식당이 제법 왁자지껄하며, 대구나 울산에서 오는 손님들이 가장 많다. 전라도나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도 더러 있다. 토요일에는 연인들이, 일요일에는 단체나 가족 단위로 관광 삼아 구룡포항에 들렀다가 대게식당을 찾는다.

포항구룡포대게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지방 함량이 적고 해열 및 해독작용은 우수하다. 껍질에는 키토산과 타우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발육기 어린이 · 회복기 환자 · 노약자에게 좋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 면역력과 간 기능을 강화하고, 생체리듬 조절 능력이 있으며, 미용효과 · 피로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찜, 구이, 샤브샤브 등을 만들 수 있다. 구입관련 문의는 054-276-6621(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겨울철 별미 셋_포항구룡포피데기

이밖에도 구룡포 상인들이 자랑하는 먹거리가 또 있다. 포항구룡포피데기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서 오징어를 직접 받아 활복 및 건조시켜 출하하며, 전국유통물량이 95%를 차지한다. 신선한 바닷바람으로 70% 정도까지 건조해 영하 3~5℃로 보관, 최적의 맛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마른 오징어의 수분함량은 18~20%이지만 피데기는 30~35%다. 피데기는 먹을 때 담백한 맛을 내는 일종의 아미노산이다. 피데기를 구울 때 나는 냄새는 타우린 성분으로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중성기질을 억제하는 BPA, 머리를 좋게 하는 DHA가 풍부하다. 간장 해독작용을 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DHL 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다. 노화방지를 하고 건강장수식품으로도 좋다. 구입관련 문의는 054-276-0760(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2012 한민족해맞이축전

용호상생으로 세상을 향한 소통

포항 抱悃

●●● 오는 12월 31일부터 2012년 1월 1일 이틀간 포항 호미곶에서 열리는 <제14회 호미곶한민족 해맞이축전>은 새해를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소통(疏通)의 화두에 담아 전 국민에게 전하는 대잔치로 치러진다.

임진년 용띠 해를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전의 주제는 국운상승의 염원과 호미곶이 지닌 호랑이 꼬리라는 장소성을 부각시킨 <용(龍)·호(虎)·상(相)·생(生)>으로 정했다. <용호상박>을 패러디한 용호상생은 소통과 상생이 필요한 작금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다. ●●●



특히 해맞이 후 호미곶광장에서 펼쳐질 <2012 상생과 소통의 대합창>은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 2,012명이 참여해 새해 첫날 희망과 소통의 기원을 담은 대합창이다.

이에 앞서 자정행사 카운트다운에서는 현재 바다와 육지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생의 손'이 서로 빛으로 맞잡는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동시에 용띠 해를 상징하는 대형 용조형물과 호미곶 호랑이상(像)이 점등되고, 형형색색의 레이저로 연결되면서 용호상생의 장관이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빔프로젝트와 레이저 퍼포먼스, 뮤지컬꽃쇼, 멀티LED쇼 등으로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연출하는 것은 물론 소망등과 소원지달기, 타임캡슐, 민속놀이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열리게 된다.

구분		시 간	내 용
해님이 행사	만남 (전야행사)	19:30 ~ 2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흥보영상, 풍물 길놀이, 소망메시지 작성 ●축전 타이틀 영상, 관광객 참여 한마당 ●한국무용, 재즈댄스, 힙합, 국악 등 예술인 공연 ●청소년, 다문화가족, 근로자 등 공연 ●현대무용 '내일을 향해'
	성찰 (자정행사)	23:40 ~ 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님이영상 & 송구영신 영상 내레이션 ●주제공연 1 : 빛의 르네상스 '레이저 퍼포먼스' ●Count-down, 용·호·상·생 점등식 ●뮤지컬꽃쇼 ●주제공연 2 : 빛의 하모니 '멀티 쇼' ●신년메시지 ●초청공연 / 난장한마당 ●축전 심야 영화
해맞이 행사	희망 (해맞이행사)	06:40 ~ 0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공연(대망의 빛을 기다리는 공연) ●희망의 나래(창작무용 '새 빛 기원') ●환희의 찬가(성악양상블) ●새해인사 ●해맞이
특별 행사	평화 (특별행사)	08:00 ~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상생과 소통의 대합창(평화, 화합, 성공기원) ●1만 명 떡국 나눔 행사
부대 행사	부대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망등, 소원지 달기 ●군고구마, 군밤체험 ●민속놀이 체험 ●과메기, 돌문어 시식 및 판매 ●호미곶면 먹거리장터 ●호미곶 출사대회
	홍보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시정방향, 제2새마을운동, 첨단과학도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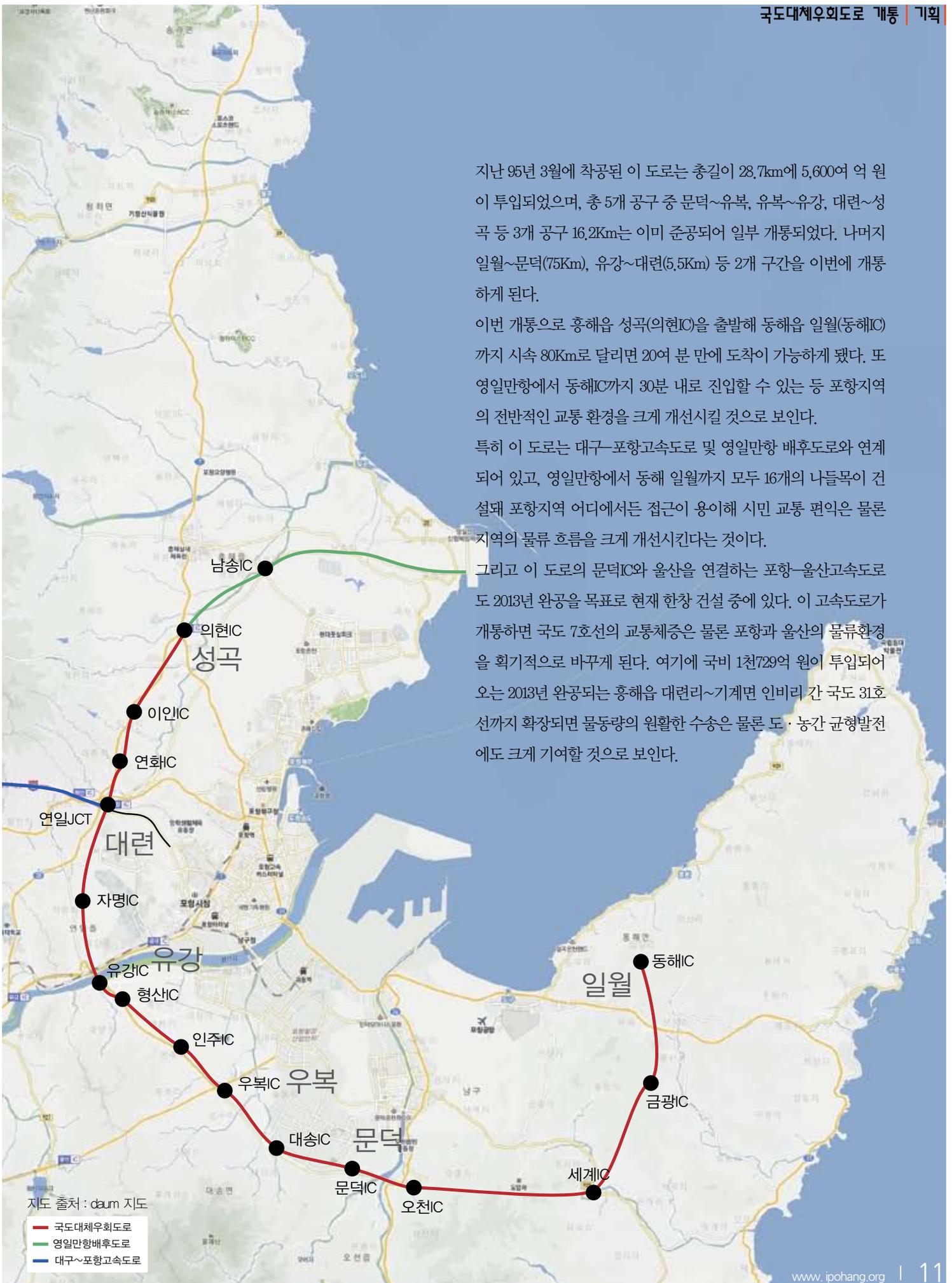
※ 위의 행사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항 국토대체 우회도로 연말 개통

시동팔달 고동강

하나씩 그려진다

●●● 포항 국토대체 우회도로 전 구간이 마침내 시원하게 뚫린다. 착공 16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이 도로는 흥해읍 국도 7호선과 동해면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도심지 우회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도로가 올 연말 완전 개통되면 교통 분산 효과로 기존 시가지 통과 시간이 25분 정도 빨라지는 등 만성적인 시가지 교통난 해소는 물론 철강공단과 영일만항 배후 권역 화물수송이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져 물류비 절감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95년 3월에 착공된 이 도로는 총길이 28.7km에 5,600여 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총 5개 공구 중 문덕~유복, 유복~유강, 대련~성곡 등 3개 공구 16.2Km는 이미 준공되어 일부 개통되었다. 나머지 일월~문덕(75Km), 유강~대련(5.5Km) 등 2개 구간을 이번에 개통하게 된다.

이번 개통으로 흥해읍 성곡(의현IC)을 출발해 동해읍 일월(동해IC)까지 시속 80Km로 달리면 20여 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게 됐다. 또 영일만항에서 동해IC까지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등 포항지역의 전반적인 교통 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도로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및 영일만항 배후도로와 연계되어 있고, 영일만항에서 동해 일월까지 모두 16개의 나들목이 건설돼 포항지역 어디에서든 접근이 용이해 시민 교통 편익은 물론 지역의 물류 흐름을 크게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로의 문덕IC와 울산을 연결하는 포항-울산고속도로도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한창 건설 중에 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국도 7호선의 교통체증은 물론 포항과 울산의 물류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된다. 여기에 국비 1천729억 원이 투입되어 오는 2013년 완공되는 흥해읍 대련리~기계면 인비리 간 국도 31호선까지 확장되면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도·농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 출처 : daum 지도

- 국도대체우회도로
- 영일만항배후도로
- 대구~포항고속도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

지역의 문화를 담아 21세기 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Steel Art Museum'을 표방하며 문을 연 포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 오는 12월 22일이면 개관 2주년을 맞는다. 불과 2년 만에 36만여 관람객이 찾는 등 포항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미술관을 찾았다.

환호해맞이공원에 자리 잡은 포항시립미술관은 '아름다운 숲속 미술관'으로 불린다. 이런 환경은 미술 감상에서 오는 감성적 위로에다 정서적 안정까지 더해 일상의 피로를 날리게 한다. 미술관의 내부마감재로 쓰인 현무암은 소리를 흡수하고, 습도를 조절해 주며, 음이온을 발산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관 전 '신철기시대의 대장장이'를 시작으로 '철의 연금술', '미디어의 정원', '파라테크놀로지-이상하고도 이로운 기술들' 전(展)까지 철강도시의 특성을 살린 전시를 통해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의 기반을 놓았다는 게 지역미술계가 내리는 대체적인 평가다.

더불어 일상에서 미술을 만나보는 '미술 속 삶의 풍경', '생활의 목적' 등 대중친화형 전시와 지역미술을 후원하고 알리기 위한 '진경의 맥', '지역원로작가전을 기획하는 등 지역미술 활성화에도 주력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디어아트 거장 '백남준 특별전을 열어 시민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미술관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교육 현장으로서의 교육기능에 보다 충실하고자 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기획했다. '깊이 있는 안목의 시작', '작가초청특강' 등으로 시민들이 가진 미술문화 전반의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나갔다. 또 수차례에 걸친 세

미나와 포럼을 열어 심도 있는 미술 담론의 장도 열었다. 또한 인문학, 과학과의 만남 등 타 학문과 융합의 시간도 마련, 미술관이 창의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섭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특특히 했다. 차별화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이들에게 상상력 있는 발상의 토대를 놓고자 했다. 방학 때마다 '어린이 미술 디자인 체험교실'을 열어 정서안정은 물론 감수성, 창의성 개발의 토대도 놓았다. 올해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포스텍과 미술 과학 융합 프로그램인 POMA 다빈치 키즈를 열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발상과 사고확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미술관은 지역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다양한 문화시민활동에도 나섰다. 미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고, 이들은 다시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봉사하는 POMA 도슨트 양성에 나서 2기를 배출했다. 이들의 역할은 미술관이 시민과 소통해 나가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미술관은 앞으로 스틸 아트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다지기 위한 전시는 물론 미술문화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시를 기획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민들과 쉽고 편안하게 소통하기 위해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미술관은 소장품을 공공공간으로 확장시켜 공공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도시문화환경 조성에도 활용한다는 아트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과 함께하는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도 쉽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지금 지역문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연

크리스마스 해피 콘서트

- 공연명 :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 기간 : 12.17(토) 19: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 유료(66천원, R 55천원, S 44천원)
- 문화회원 30%할인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일음악회

- 기간 : 12.03(토) 19:30
- 장소 : 중앙아트홀 전시실
- 프로그램 : 우리 소리와 클래식 만남
- 관람료 : 무료
- 관람연령 : 연령 제한 없음

육거리 문화공간갤러리 기획전시

- 기간 : 2011.12.20(화)~2012.1.6(금)
- 전시명 : '플래카드 시화전 - 육거리, 동심의 세계로 물들다'
- 장소 : 중앙아트홀, 육거리, 실개천
- 축하공연 : 2011.12.20(화) 19:00 중앙아트홀

한국기석문명의 수수께끼

2011년 12월 22일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 기석문명의 수수께끼>전은 한국의 선사시대, 찬란했던 문명을 인문학적 접근(신화학, 선사기호학, 미학)으로 색다르게 조명해보고자 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10여 년 동안 한국의 암각화와 기석유적을 중심으로 선사시대의 문명 세계를 독특한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해온 서울대 국문학과 신범순 교수의 기존 학계의 통념을 넘어서는 다학제적이고, 실험적인 관심과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시는 신범순 교수의 선사시대 문명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선사 문명이 가진 경이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이번 전시는 인문학과 미술과의 융합된 시각을 통해 색다른 전시문화의 창출은 물론, 한국의 선사시대 미술문화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현재의 새로운 역사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각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 ▶ 기간 : 2011년 12월 22일~2012년 2월 26일
- ▶ 장소 : 미술관 전관
- ▶ 전시구성 : 1,2전시실(한국기석문명의 수수께끼) 3,4전시실(현대미술전시)
- ◀ 경산 명마산 생명목 글자비위

물맛이 좋은

-홍해 성곡리 참새미 마을

참새미마을

글 | 김일광 삽화 | 최수정

'이만하면 우리 집안 대대로 밥을 굶진 않겠군.'
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도음산에 올라서서 동쪽 자락을 살펴보고 있었다. 잡목이 우거지고 돌덩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버려진 땅이었다. 손을 이마에 대고 땅을 둘러싸고 있는 산등성이를 살폈다. 순하게 생긴 능선도 마음에 꼭 들었다. 순한 산세는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마음을 곱고 바르게 만들어 줄 것 같았다.

"어떠냐? 희덕아."

"무엇을 말씀입니까?"

"저 앞에 펼쳐진 땅 말이야. 네가 자리 잡고 살아갈 땅이야."

"저 곳이 땅이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 지금은 황무지로 보이겠지. 그러나 장차는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릴 땅이 될 거야."

손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손끝을 따라 잡목이 우거진 황무지를 보고 있었다.

며칠 뒤에 그 노인을 따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초라한 살림살이를 이고 지고 모여 들었다. 나무 밑에 짐을 내린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막막한 표정을 짓던 젊

은이가 투덜댔다.

"온통 잡목뿐이고 돌투성이인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거들었다.

"아버님! 가난하지만 그곳에서 살 걸 그랬습니다. 어디다 씨를 뿌린대요?"

다른 사람들도 말을 거들지는 않았지만 불이 한참 부어 있었다.

"아이들을 굶기면서도 그곳에서 엉겨 붙어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노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희덕아! 도끼와 가래 이리 가져오너라."

"예, 할아버지."

노인은 희덕이가 가지고 온 도끼를 들고 나무들을 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잡풀과 덩굴을 걷어서 한 쪽으로 치웠다. 노인이 몸을 움직이자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거들고 나섰다. 한나절이 지나자 제법 넓은 땅덩이가 드러나고 하늘이 환하게 열렸다.

"어떠냐? 이 흙 색깔을 보아라. 무슨 씨를 넣어도 잘 키워 줄 거야."

노인은 흙을 한 줌 들어올렸다. 한 번도 작물을 키워내지



얇은 처녀아이와 같이 순정한 흙이었다. 그 흙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입이 썩 들 어가고 말았다.

며칠 뒤에 다른 식솔들도 그곳으로 들어왔다. 마을을 이루고 당장 필요한 게 먹을 물이었다. 처음에야 개울물로 버티었지만 어린아이들까지 들어오자 개울물에 의 지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샘을 파기로 하고 깨끗한 냇그릇 하나를 찾아내서 노인에게 가지고 왔 다.

"집은 내가 짓지만 물 찾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희덕이가 좋겠다. 앞으로 이 땅 을 지킬 사람은 희덕이니까."

노인은 희덕이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에 목욕을 했다. 그리고 해가 지 기를 기다렸다. 한밤중, 새날이 열리는 시각에 첫물을 냇그릇에 담았다. 희덕은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냇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앞으로 나가라. 그릇에 별 셋이 담기면 그곳에 멈춰야 한다."

나지막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가득했다. 희덕은 조심스럽게 첫걸 음을 뒀다. 순간 물이 찰랑거렸다.

"조심해야 하느니. 한 걸음, 한 걸음에 정성을 담아야 하느니."

얼마나 걸었을까. 새벽별 셋이 냇그릇에 내려와 앉았다.

"하, 할아버지!"

"그래. 나도 보았다. 고맙게도 별님이 내려오셨구나."

노인은 손자가 선 곳에도 대나무 막대기를 꽂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날이 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가 꽂힌 자리에 우물을 팠다. 이윽고 맑은 물이 고이기 시작 했다. 우물 속에 들어가 있던 젊은이가 물을 떠서 노인에게 전했다. 노인은 첫 물 을 마시고는 가만히 물맛을 음미하였다. 참으로 달고 시원했다. 노인은 그만 파도 록 일렀다. 너도나도 물맛을 본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모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물은 한 바가지에서 불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딱 그만큼 고여 있었 다. 애써 판 우물의 물맛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양이 많지 않았다. 노인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커다란 두루미병을 들고 천곡사로 올라갔다. 천년 넘게 물 이 흘러넘치는 천곡사 석정의 물을 병에 담았다.

"희덕아! 공손히 가슴으로 물을 모셔야 하느니."

두루미병을 건네받은 희덕이는 물을 조금씩 뿌리며 절문을 나섰다. 그런데 희덕 이가 뿌리는 물을 따라 석정의 물줄기가 재갈거리며 따라나서는 게 아닌가. 물은 희덕이를 놓칠 새라 잘도 따라왔다. 이윽고 우물에 이르자 그 물줄기는 땅 밑으로 스르르 스며들더니 우물 아래로 가서 퐁퐁퐁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차고 맛이 단 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물맛이 참 좋았던 샘은 오랫동안 사람과 들을 적셔 주었다.

아이들의 꿈과 마음을 자라게 하는

나눔의 온도계를 채워주세요!

시간은 한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엄습하는 추위는 두터운 옷가지로 막을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마음속 추위는 물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포항에도 어려운 생활형편 탓에 청운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미래의 동량들이 있습니다.

포항시장학회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차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21세기 포항을 빛낼 중추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3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후 나눔의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코흘리개 아이들부터 지역의 우수 기업까지 포항의 각계각층이 3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20일 마침내 270억 원을 돌파해 목표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장학기금 300억 원 달성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역사랑, 인재육성을 위한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꿈과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포항으로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참여는 포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 장학기금 온도계가 점점 뜨거워지는 나눔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 한해를 가장 뜻 깊게 정리할 수 있는 3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에 동참하시면 행복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장학기금 기탁자

- 송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125만천 원
- 학산재활용센터(대표 차숙희) 100만 원
- 영신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254만4천 원
- 공원식 전 정무부지사 1000만 원
- 동지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 103만8,400원
- 오천교 교 학생 폐품 판매 수익금 50만 원
- 포스텍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100만 원
- 포항시의정회(회장 박만천) 500만 원
- 포항시자원봉사연합회(회장 박정애) 500만 원
- 포항다소리세오녀 합창단 시상금 382만4천 원
- 포항 별미북별미회 김상출 대표 시상금 50만 원
- 정량동 임순덕, 정량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00만 원
- 포항문화원 월월이정정보준회 60만 원
- (주)HMT 노준택 대표 1000만 원
- 영일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204만3천 원

※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학금 기탁자

포항시 테라노바, UN-HABITAT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중앙상가 실개천이 일본 후쿠오카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인간거주위원회(UN-HABITAT)가 주최한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포항시는 11월 1일 후쿠오카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UN-HABITAT 회의에 참가해 테라노바 프로젝트 사례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결과, 아

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상은 UN-HABITAT가 개개인의 행복한 생활환경 구축을 목표로 타 도시의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올린 아시아 도시지역이나 대형 프로젝트 등을 표창하는 상이다.

시는 박승호 시장 취임 이후 도시디자인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테라노바 프로젝트의 하나인 중앙상가 실개천 조성 사업으로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은 도시는 중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11개 도시로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제주도가 선정됐다. 중앙상가 실개천은 일대 상가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되고 있고, 2~3 정도의 도심 열섬현상 완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미래의 시장님들,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포항시가 11월 12일 시장실을 어린이들에게 개방하고 꼬마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날 시장실을 찾은 관내 어린이

20여 명은 박승호 시장으로부터 포항시와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박 시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열린 시장실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미래의 시장 돼보기', '포항 지명 유래', '연오랑 세오녀 설화' 등 포항 관련 내용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시청 전당대에서 발원된 시가지 모습을 조망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시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열린시장실 행사를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응이 좋을 경우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도시 포항에 다채로운 로봇들 '총출동'



제8회 포항가족과학 축제 및 제3회 한국 지능로봇경진대회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포항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포항지능로봇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능로봇경진대회, 수상작 전시, 시연, 과학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으며 3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축제는 '빛과 불의 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빛으로 보는 과학의 세계'라는 특별 과학 테마로 승화해 빛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 빛이 과학·산업·예술 등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응용되고 있는지를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마다가스카르 국민들 가슴에 휘날린 태극기와 포항시기



아프리카의 오지 섬나라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와 포항시기가 게양됐다. 10월 30일 마다가스카르 아날라망가 주(州) 소아비나 시(市)에서 열린 소아비나-포항메디컬

센터 준공식에 태극기 물결로 가득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 50m에 태극기와 마다가스카르 국기를 든 주민 3천여 명이 박승호 포항시장 등 포항시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했고, 행사장에 들어서자 마다가스카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운영부장관, 아날라망가 주지사, 소아비나 시장 등 참가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로 맞았다.

박승호 시장은 "소아비나-포항메디컬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포항은 어려운 나라에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가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려 한다. 메디컬센터 준공은 이 같은 포항의 의지의 표현이며,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증거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메디컬센터를 지어준 포항시와 평화의료재단에 머리숙여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시가지 폐철도부지, 도시숲으로 감짝 변신



폐철도 부지가 도시숲으로 변모했다. 포항시는 11월 10일 우현사거리 철도부지에서 폐철도부지를 이용한 도시숲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도시숲을 조성, 시민들에게 여가문화생활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수립에 들어가 2009년에 착공,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1단계 공사구간은 북구 우현동 유투저장고에서 신흥동 안포간널목까지 총 2.3km이며, 실개천과 인공폭포는 물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1,923m에 2천6백여 본의 나무를 심었다. 시는 앞으로 KTX개통에 따른 포항역 이전 후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산터널~효자역 구간 5km에도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포항 구간 만들어진다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공사가 추진된다. 포항시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해파랑길 조성공사구간 중 시 구간은 화랑순례길 테마구간으로 남구 장기면 두원리에서 북구 송라면 화진리까지 총 112km의 탐방로라고 밝혔다. 또 올해 내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서 호미곶면 구만리 17.8km 구간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연결데크 및 길 정비, 안내판 설치 등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해파랑길을 조성하며,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14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KAGRO)와 업무협약

포항시는 11월 4일 세계한상대회가 열린 부산 BEXCO에서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포항 농식품유통산업의 해외진출 공동추진, 해외마케팅 정보공유, 식품유통산업의 발전관련 조사 공동수행과 함께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하는 각종 수출지원사업을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 대축제에서 수능스트레스 날렸다

2011년도 포항시 청소년 대축제가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4일 해도공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수능으로 고생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11월 10일은 수능대박, 11월 14일은 해도공원에서 스트레스 제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댄스동아리팀인 영일고 '에이블', 흥해공고 '뉴존이' 식전행사 공연으로 흥을 돋웠으며, 이어 걸그룹 씨스타 '페이지 H유진'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 포항청소년 가요제 수상자인 포항여중 '유로비트'팀과 그 외 대학동아리 공연도 학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도시녹화 및 산림 분야, 연이은 수상 '상복'



포항시의 도시녹화 및 산림분야 사업이 각종 평가에서 연이은 수상의 쾌거를 거두고 있다. 시는 산림청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통한 경관

향상 부문 우수 시·군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2011년 녹색도시(Green-city)평가에서 도심 전역을 연결하는 녹도조성과 도심공한지 도시숲 조성 등으로 도심경관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이유로 상패와 함께 포상금 2백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또 경북도 2011년도 산불방지 종합평가에서도 올해 산불제로화에 성공함에 따라 우수상과 더불어 포상금 150만 원을 수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름다운 숲 선별대회에서 포항시 송라면 '여인의 숲'이 전국에서 가장 생태적이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다.

흥해 오도1·2리 앞바다, 연안바다목장사업지 선정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2리 앞바다 155ha에 내년부터 연안바다 목장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레저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전국에서 12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포항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만이 사업대상지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시설, 해중림 조성, 유어낚시터 시설, 수산종묘 방류, 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제180회 임시회 주요 의정

포항시의회(의장 이상구)의 제180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인정 보상과 관련한 차동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진)** 포항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에 대해서 포항타워건립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포스코 페로실리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문제는 예산심사의 절차가 남아 있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복덕규)** 음폐수 육상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 검토에 대해서 2013년부터 육상처리를 해야 하는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시의회가 파악한 자료를 비교 검증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장복덕)** 동해면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안에 대해서 우리 시 가용자산에 맞추어 중장기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포항시의회, 하반기 의원 연수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의회세미나실에서 2011년 하반기 의원연수를 개최했다. 특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이번 연수는 지역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타지를 배제하고 의회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특강에 초빙된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이환범 교수는 '지방의회 창조경영 리더십과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근원적 재검토'라는 주제로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강의를 펼쳤다. 또한 제3강의에서는 들꽃마을의 최영배 신부를 초빙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명강의를 청취했다.

한편, 연수에 참석한 이상구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이번 연수를 간소하게 실시했다. 그러나 외형만 간소화했을 뿐 연수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준비되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항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려는 학생들로 붐벼

요즘 포항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을 견학하고자 하는 관내 학생들로 북적이다. 지난 10월 11일 대송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14일까지 대이초등학교, 유강초등학교, 양학초등학교 학생들이 포항시의회를 견학했다. 포항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은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견학은 포항지방의정연구소에서 미래의 주역인 관내 4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민주적 가치관과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학교의 프로그램 중 일부이다.

▶▶ 포항시의회, 지역경제 여건 감안-내년도 의정비 동결

포항시의회(의장 이상구)는 지난 10월 17일 2012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이후 4년째 의정비를 동결하게 된 것이다. 포항시의회의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 의정비 결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예산절감과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2008년부터 개정하지 않았다.

▶▶ 김장쓰레기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1. 11. 21. ~ 12. 16(26일간)
- 배출대상 : 배추, 무 등 김장부산물
- 배출방법 :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배출
 - 배추잎, 무청, 무 등은 3등분 이상 잘게 썰어 배출
 - 양파망, 노끈 등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배출장소 : 단독주택 · 상가(문전배출), 공동주택(지정장소)
- 문 의 처 : 시청 청소과(270-3194)

▶▶ 포항시 우수농산물 직판행사

- 기 간 : 2011. 12. 2(금) 10:30 ~ 12. 3(토) 17:00
- 장 소 : 포항시 농업인화관(두호동 대원고층아파트 옆)
- 내 용 : 우수 농산물 전시 및 판매,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 시식회, 행운권 추첨, 이벤트행사
- 판매품목 : 쌀, 사과, 배, 잡곡류, 시금치, 부추, 버섯, 김장채소류 등
 - ※읍면별 우수 농특산물을 직거래를 통한 저렴한 가격에 판매
- 문 의 처 : (사)한국농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246-3719)

▶▶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일시금 100만 원, 월 10만 원 12개월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생아 또는 부 · 모 통장사본, 신분증
- 문 의 처 : 시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70-2993)

▶▶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3년납 10년 보장월 2만 원 정도,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접 수 처 : 읍면사무고, 동주민센터(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 · 모 신분증
- 문 의 처 : 시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70-2993)

▶▶ 시·군·구 통합! 지역의 건의를 받습니다

- 통합건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주민투표권자의 1/50)의 연서로 할 수 있으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 의 처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02-2180-2922~3)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안내

- 적용대상 :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동창회, 여행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 시행내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은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
 - 회원탈퇴 등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
 -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침해사고 발생시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문 의 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www.privacy.go.kr)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의무자는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
- 신청기한 경과시 범칙금 부과
 -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 10일 이내는 범칙금 10만 원
 - 10일 후 매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되며,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됨.
- 상속이전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이전등록신청서 1부(민원실 비치)
 - ② 상속 각서 1부(민원실 비치)
 -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각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복사한 뒤 여백에 상속 차량번호와 상속포기함 기재한 후 날인함)
 - ③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제적등본(가족사항 포함) 각 1통씩(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발급)
 - ④ 자동차 등록증
 - 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1통(상속자/보험회사 발행) 단,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 1통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문 의 처 :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270-5581~3)

에너지절약, 내복 입기로 시작하세요!

내복을 입으면 겨울철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입니다. 내복 착용 시 3°C의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온 가족 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끄기, 창문 문풍지 붙이기, 실내온도 낮추기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수칙을 실천합시다.



디지털방송 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 안내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됩니다. 지상파 아날로그 TV를 직접 수신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 아날로그 TV만을 보유하고 ▲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아래의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가구의 선택에 의해 ▲ 디지털터번터 1대 무상지원 또는 ▲ 정부 지정 디지털 TV 구매 시 구매 보조비(10만 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가구

-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가구
- TV 수신료 면제 가구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가구 : 자활근로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 케이블, 스키어리프, PTV 등 유료방송세대 또는 디지털 TV를 이미 구입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료방송가구 : 별도의 월 이용료 지불가구, 영화, 홈쇼핑, 뉴스전문 채널 등을 시청하는 가구, KBS, MBC, SBS(TBC), EBS 사이에 홈쇼핑 채널이 있는 가구 등

● 신청기간 : 2011. 11. 11 ~ 12. 31(1차 신청기간) ※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및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

● 문 의 : 디지털방송 콜센터(080-2012-012), 포항시청(270-828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겨울철 전기절약 운동에 참여합니다!

지난 9월 15일 전력부족에 따른 정전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 겨울, 추운 날씨로 전력소비가 급증할 경우 정전상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수요는 전기난방기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온풍기, 냉난방 겸용 시스템에어콘 사용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절전을 위해서는 실내온도를 20°C로 유지하시고 전력소비량이 큰 전기난방기는 꼭 필요할 때만 잠깐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복과 실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상승하여 전기난방기 사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집안의 조명은 반드시 꺼주시고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전기절약운동"에 동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에는 전기난방기, 세탁기, 전기밥솥, 다리미, 청소기 등 전력소비량이 큰 가전제품 사용은 자제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청포도의 고향 청림동 칭찬하는 마을로 변신 거듭



주민갈등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청림동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행정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칭찬릴레이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7월부터 매월 2명씩 지금까지 10명의 칭찬대상자를 선발, 시상과 함께 <칭찬합니다>란 문패를 달아주었다. 더불어 칭찬릴레이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그 훈훈함도 전달하고 있다.

이 운동은 주민들은 물론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장기민원으로 지난 3년간 표류했던 문화복지회관이 착공되었고, 15년간 방치되었던 잉꼬프라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청림동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해안선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훼손되었다. 그 잃어버린 경관과 정취를 되찾기 위해 농촌풍경을 재현한 관광테마타운도 조성했다. 초가집과 원두막은 물론 박, 옥수수, 감, 단풍나무, 닭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계절별 특색까지 살려 찾는 이들로 하여금 농촌의 정취에 흠뻑 젖게 한다.

또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 새참을 이고 가는 아낙네, 애를 업고 막걸리를 받아가는 소녀와 그 뒤를 쫓아가는 강아지 등

옛 농촌을 테마로 <밭가는 농부>라는 디오라마를 재현해 포항시 티투어 관광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육사 「청포도」 시의 배경이 된 청림동에는 과거 '삼륜포도원'이라는 동양 최대 포도밭이 있었고, 1960년대까지도 '포항포도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이를 소재로 한 청포도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청포도 문학축제와 함께 관광명소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주민, 자생단체, 기업체,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제2의 행정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포항공항 관문인 청림동 31호 국도변(해병대 BOQ~해병대 북문)도 정비했다. 그 결과 오랜 폐업으로 흉물이 되어버린 상가 간판과 벽면이 말끔하게 변했다. 이곳에 벽화를 그리고 시정 및 동정을 홍보하는 대형 간판을 설치하여 거리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는 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gulp! gulp! gulp!
5 channel sound(5'00"), speaker, speaker cable, ampere, DVD-player, variable installation_2008

김영섭은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운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 소리들은 도시사회의 문화적 잉여물들로 도시의 또 다른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욕망과 무의식을 드러낸다. 작가는 이를 가시화, 무대화시키으로써 현대적 삶의 부조리한 일상과 낯선 정황들을 전한다. 일종의 오브제화된 소리-설치인 셈인데, 작가는 이를 통해 도시가 품고 있는 다양한 표정을 펼쳐놓는다. 포항시립미술관의 '파라테크놀로지-이상하고도 이로운 기술들'전에 출품된 이번 작품 <gulp! gulp! gulp!>는 무언가를 삼킬 때 나는 의성어를 뜻한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성 스피커 선을 컵의 형태로 말아 올려 하나의 단단한 오브제를 형성하고 그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반전 혹은 전이시키는 사운드를 설치한 것이다. 컵이라는 형태에서 현대인의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욕망을 마우스의 클릭 소리와 결합하여 컵이 내포하고 있는 1차적 목마름의 욕구를 2차적 정신적 결핍의 현상으로 전이시킨다.

김영섭

개인전 2009 inter-view 꿈을 묶다, 갤러리 정미소, 서울 | 2009 awash_ 소리를 키우자, 영은미술관, 광주 | 2008 정원에 대한 새로운 기억(서울시립미술관 SeMA 지원전), 토포 하우스, 서울 | 2007 맛있는 식사,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 2006 케이블도자기 그리고 소리(공존), HBK Saar, 자이브릭켄, 독일 | 2003-4 정지된 소리, Akademie fuer Tonkunst Darmstadt, 다름슈타트, 독일 | 정지된 소리, Muenchhof, 호호슈파이어, 독일 | 1999 -화-장-수-술-, 관훈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1 INTRO전,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고양 | 2010 남녀의 미래 No more daughters & heroes, 아람미술관, 고양 | MATCHINGPOINT_감각적 사유전, 영은미술관, 광주 | ceramic ART & TECHNOLOGY, aT 센터, 서울 | REMIND 그곳을 기억하다(영은미술관 10주년 기념전), 영은미술관, 광주 | 가만히 살아있는, 포스코미술관, 서울 | 수상한 집으로의 초대,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 2009 message in a bottle(rainy days 2009), Mobilier Bonn, 룩셈부르크 | 열굴전, 서울 자치구 문예 공간 순회전시, 서울 등

제14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2011. 12. 31 ~ 2012. 1. 1
호미곶 해맞이 광장

용 · 호 · 상 · 생

